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김인철 축산자원개발부장

국립축산과학원은 그동안 국가의 책무 중 하나인 토종 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를 이용한 가금종자 개발을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다. 1992년부터 전국 각지에 산재한 재래 닭 종자를 수집하고 순수화 복원을 시작하여 성장이 빠르면서도 재래닭 특유의 맛을 지닌 실용재래닭의 개발로 고품질 재래닭인 '우리맛닭'을 개발하여 2008년부터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김인철 축산자원개발부장은 외국 수입 닭고기와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차별화와 안전한 고품질 가금산물 생산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토종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우리 국민의 입맛에 맞는 종자를 개발하여 새로운 시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산학관연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김인철 축산자원개발부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45개국과 8개의 FTA를 체결하였고 12개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에, 외국산과의 가격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생산비를 줄이고 원산지 표시제도를 강화하고 고품질의 닭고기를 생산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인철 축산자원개발부장이 밝힌 국립축산과학원의 가금연구 추진방향 및 FTA 체결에 대비한 국내산 닭고기의 경쟁력 확보 방안, 닭고기 자조금 활성화 방안을 살펴 보기로 한다.



김인철 축산자원개발부장이 닭고기 부분육 총당을 위한 대형 닭 생산 현장평가회에서 개회사를 진행했다



인터뷰

수입육과의 차별화 및 한식 세계화를 위하여 고품질 국내산 닭고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

FTA 등 개방화에 맞서 생산비를 줄이며 고품질 닭고기를 개발해야 할 것
자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가와 도계장이 공동운명체로서 적극적 참여 필요

■ 국립축산과학원이 수행한 그 동안의 가금연구 실적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국립축산과학원은 국가의 책무 중 하나인 토종 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를 이용한 가금 종자 개발을 위하여 성장이 빠른 아비계통 및 알을 잘 낳는 계통과 육질이 우수한 계통을 교배하여 '우리맛닭'을 개발하여 2008년부터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닭의 활용가치 증진을 위한 삼계탕 전용 계 개발, 삼계탕 레시피 개발 등을 통해 소비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계산물의 고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기능성 사료 개발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생리활성물질을 함유한 부산물을 활용하여 생균제, 발효사료, 에센셜 오일, 클로렐라, 알파리포산, 유기산계제, 식물추출물 등 다양한 항생제 대체제를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닭고기 외관손상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료, 영양, 사양관리 등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확립하고, 시력보호에 효과가 있는 루테인 함유 닭고기 생산기술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 각종 수입육 증가 및 FTA 체결 등으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한 닭고기의 경쟁력 확보 방안 및 소비활성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45개국과 8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12개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칠레 FTA를 필두로 한·미,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국내 가금 시장은 해외 축산업체들에게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국내산 닭고기의 생산비가 경쟁국보다 높은 상황에서 외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이기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중국과도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도 개방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개방이 지속되고 관세가 낮아지게 되면 외국의 가금산물 수입가격은 계속 낮아져 국내산의 가금산물의 경쟁력은 갈수록 취약해집니다. 따라서 사료비, 인건비, 연료비 등 생산비를 줄이고 외국제품과 차별화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제도를 강화하고 수입 냉동닭고기와 차별화되는 고품질 닭고기를 생산해야 하며 특히 토종닭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우리 입맛에 맞는 차별화된 가금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종자 개발 등에도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축사시설현대화, 친환경축산 체계 확립,

대형닭 생산 등을 통해 체질을 강화하고 외국으로 삼계탕, 닭고기 부분육 등을 수출하여 수급을 조절해야 하겠습니다.

■ 닭고기 자조금의 활성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닭고기 자조금 설립목적은 교육 및 정보제공을 통한 농가와 산업에 기여하고 국내산 닭고기 소비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육계산업 기반 조성 및 소비자에 대한 닭고기의 우수성 홍보 등을 통해서 소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닭고기 자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조금 거출 대상 농가나 도계장 등 모두가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로서 산업의 외연을 확대해야 공생공영할 수 있다는 절박한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나만 무임승차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닭고기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도 농가의 귀중한 거출금과 정부의 지원금으로 자조금이 형성되는 만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조금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온갖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 앞으로 국립축산과학원의 가금연구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외국제품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토종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우리 국민의 입맛에 맞는 종자를 개발하여 새로운 시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도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시설현대화와 함께 생산비의 70% 내외를 차지하는 사료비와 가축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고기능성 생리활성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농산부산물도 사료자원으로 활용하여 사료비도 절감하고 기능성 가금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축산과학원은 친환경 동물복지 양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역위생 측면에서도 선진화하여 악성질병과 만성소모성 질병의 피해를 막아야 하는 과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친환경 가금산업 기반을 위하여 자연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쾌적하고 소비자가 오고 싶어 하는 농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식 세계화, 한류 등의 트렌트에 따라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레시피와 가공제품을 개발하여 우리 가금산물이 중요한 수출산업 품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OT ISSUE

매년 면세유 배정량이 감소해 농민들 불안감 커져

정부·농협, 농민의 부정사용 및 신청에 따른 정확한 배정 언급...면세유 실태 파악에 대한 필요성 대두돼



면세유 감소는 겨울철 사양관리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매년 면세유 배정량이 줄어들고 있어 농가들의 농장경영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민들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통해 농가의 면세유 배정량 감소여부를 쉽게 알 수 있으며, 면세유를 공급받는 농가들의 상당수가 면세유의 감소를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농가들은 20~30% 정도 면세유 배정량이 줄어들었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충남지역 한 농가는 8만 리터의 면세유가 필요하지만 4

만 리터 밖에 공급받지 못해 겨울철 사양관리가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호소한다. 정부에서 요구한 대로 계측기를 달았음에도 면세유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물론 면세유 추가신청을 하면 농협에서 실사를 거쳐 면세유를 추가해주는 하지만 점점 면세유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에도 농가들이 면세유를 배정받으며 발생하는 문제는 농가의 형편과 상황에 따른 면세유 배정량의 차등수령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개방계사는 무창계사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크게 떨어지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면세유를 필요로 한다. 특히 영세한 농민의 입장에서

개방계사를 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개방계사나 무창계사에 상관없이 마릿수로 면세유를 지급받다 보니 개방계사를 갖춘 농가들은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농민은 정확한 실태조사도 필요함을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관계자도 정확한 근거자료가 필요하다는데 입장을 같이 한다. 한 두 농가의 입장만 듣고 전체적으로 면세유 배정량이 줄어들었다고 언급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면세유 사용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면세유의 부정유통이나 사용이 줄어들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재 관련기관에서는 정확하게 실사를 하여 농민들에게 필요한 양만큼 면세유를

지급하고 있음을 밝혔다.

농협중앙회에서도 면세유는 그 동안 농민들의 부정유통이 많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한 달에 천 건의 부정유통이 적발된 적도 있다고 전하며, 지역 농협에서는 농민들이 제출하는 서류만 맞으면 신청하는 대로 면세유를 주고 있어 불량유통사례가 생기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농협중앙회 관계자도 부정유통 적발에 의한 것이든 다른 여건에 의한 것이든 면세유의 전체 사용량은 줄어들고 있음을 밝혔다. 결국 면세유를 정직하게 육계사육에 사용하는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면세유 사용실태 파악과 함께 면세유의 배정량 증가정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배달음식의 제왕 치킨’, 이대로 좋은가?

치킨에 의존한 소비가 아닌 닭고기 자체에 대한 소비촉진 활동 필요

최근 언론에는 ‘배달음식의 제왕은 치킨’이라는 주제로 ‘치킨 등 닭요리’가 배달음식의 최고봉 자리에 올랐음을 밝히는 뉴스가 화제가 된 바 있다.

지난 1월 1일 YTN의 보도를 시작으로 한국일보, 파이낸셜투데이, 광주일보, 국제신문 등 국내 주요 언론에 소개되며 치킨의 제왕자리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이 자료의 출처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개원 35주년 기념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 발표대회’의 연구결과물임을 밝혔다.

본 연구서는 지난해 5월 13일부터 7월 26일까지 전국 3,002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며, 새롭게 등장하는 경제사회인구(고령화, 독신가구 등) 특성에 따른 식품소비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한다.

연구서 중 외식 소비행태분석에 따르면 ‘치킨 등 닭요리’를 배달시킨다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 중 42.4%에 달했으며, 중화요리(21.5%)와 피자(16.6%), 보쌈/족발(10.1%), 기타(9.4%)가 뒤를 이었다.

또한 배달음식의 메뉴 선택시 고려사항은 음식의 맛이 37.2%, 메뉴의 종류가 17.3%, 가격수준이 16.2%, 배달 신속성이 13.4%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배달음식을 시켜먹는 사람들은 치킨을 선호하는 비중이 높으며, 특히 배달음식을 시켜먹을 때는 음식의 맛과 메뉴의 다양성, 가격 수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올해에는 치킨배달의 일등공신으로 꼽히는 굵직굵직한 국제 스포츠경기가 많이 열리는 해이기도 하다. 먼저 ‘피겨

여왕’ 김연아가 출전하는 제22회 소치 동계올림픽이 2월 7일부터 23일까지 열리며, 2014년 FIFA 브라질 월드컵이 6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개최되고,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이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열린다.

분명 가족들이 함께 모여앉아 경기를 시청하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는 국제 스포츠 경기의 개최와 소비자들의 ‘치킨 등 닭요리’에 대한 높은 구매비중은 큰 호재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러한 호재가 치킨 메뉴에 치우친다는 점은 닭고기 소비촉진에 있어 해결해야 할 숙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닭고

기생산업체가 치킨업체에 진출한 경우는 드물며, 수많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가 공급과잉을 빌미로 닭고기가격을 낮춰 공급받는 현실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호재를 계기로 단순히 ‘배달음식=치킨’이라는 소비자의 인식을 무너뜨리고 닭고기 자체의 판매증가를 꾀할 수 있는 다양한 닭고기 메뉴의 개발과 소비촉진활동이 적절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태국, 가금류 시장 연평균 5% 성장률 보여

태국산 닭고기의 국내시장 유입에 대비해야

태국의 가금류 산업은 태국의 농식품 부문 중 가장 유망한 분야이다. 2004년 조류인플루엔자 이후 생산 및 수출 부분에서 주춤하였으나, 조류 인플루엔자는 태국 농업이 현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태국 농업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세계 가금류 시장에서 연평균 5%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과 2012년 초 태국의 구이용

영계 생산 능력이 성장하면서 구이용 닭고기의 생산이 증가하였다. 2012년 구이용 닭고기의 생산은 전년도 135만 톤에서 15% 증가한 155만 톤으로 추산되었다.

태국은 전체 수출의 75%에서 80%를 일본과 EU로 수출하고 있다. 2012년 7월 EU에서 태국 생닭 수입 규제를 해

제하여 전년대비 태국의 닭고기 수출은 15% 상승한 54만 톤, 2013년에는 7%가 상승한 58만 톤을 예상하고 있다. 그 외에도 현재 태국은 한국, 아세안, 홍콩,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으로 수출을 늘리려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내 업계의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 O T
ISSUE

닭고기 주 구입연령인 30대 이하 위한 닭고기 요리 개발 시급하다

인터넷 통한 홍보 및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영상 요리법 개발 필요

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발표대회' 연구자료에 따르면, 배달 음식 중 치킨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밝혀졌다.

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배달·테이크아웃 현황을 살펴보면, 치킨 등 닭요리가 42.4%, 중화요리는 21.5%, 피자 16.6%, 보쌈/족발 10.1%, 기타 9.4%로 나타났다. 특히 치킨 등 닭고기 요리는 주거지역, 월평균소득 등에서 고르게 선호하고 있으나 연령대에서는 30대 이하의 소비자가 45.2%로 타 연령층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 소비자들은 치킨을 배달음식으로

선호한다. 하지만 배달음식 치킨의 경우 공급과잉으로 치킨업체에 제 값 받고 닭고기를 팔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치킨업체와의 가격교섭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가구 내 식품 구입 및 소비행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가구에서 직접 요리를 위해 가장 많이 구입하는 축산물은 돼지고기(67.2%)이며, 쇠고기(15.1%), 닭고기(11.8%)가 뒤를 잇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축산물 소비가구 중 가구주 연령이 30대 이하인 경우 돼지고기는 62.8%, 닭고기 19.0%, 쇠고기 14.6%로 젊은 층의 닭고기 구입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배달음식 선호와 가구

내 축산물 구매에서 30대 이하의 소비자가 닭고기를 선호하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젊은 층을 겨냥한 닭고기 음식의 대중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업계에서는 닭고기 요리 대중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닭고기 자조금을 통해 농협중앙회는 (사)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와 함께 지난해 구구데이 행사에서 발효음식을 이용해 개발한 '7색 7미' 닭고기요리를 선보인 바 있으며, (사)한국계육협회는 지난해 8월 여성전문지인 여성중앙과 레몬트리와 공동으로 '행복 가득! 후다닥~치킨 레시피' 요리책자를 소비자들에게 배포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닭고기 구입을 선호

하는 30대 이하 연령층을 위한 특화된 닭고기 요리 개발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20~30대 연령층을 위한 요리법을 개발하고 홍보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0대 이하의 연령층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통한 정보수집을 선호한다. 그러므로 블로그나 SNS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으며, 요리법을 위해서는 요리에 익숙치 않은 30대 이하 연령층을 위해 유튜브 등 UCC 동영상을 활용한 닭고기 요리법의 제작 및 배포 등 다양한 홍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대구 치맥축제, 대구 10대 뉴스 선정돼

27만여명 관람객 방문하고 13만톤의 닭 긴급 공수하는 대성황 이뤘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 치맥페스티벌'이 2013년을 빛낸 대구 10대 뉴스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닭기로 소문난 도시에서 시원하게 즐기는 '대구 치맥페스티벌'은 치킨과 맥주를 주제로 대구에서 처음 시도되어 전국에서 27만 명의 인파를 불러 모은 성공적인 대회였다고 전했다. 또한 대구의 대표 테마형 여름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줘 이번 10대 뉴스(9위)에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대구 두류공원 야구장에서 열린 '2013 대구 치맥페스티벌'은 10만 명으로 예상됐던 방문객 수가 3배에 가까운 27만 명에 달해 대성황을 이뤘다. 또한 약 2만 마리(20톤 분량)로 예상됐던 시식 및 판매용 닭은 하루 만에 동이나 13만 여마리의 닭을 긴급 공수하기도 했다.

지난해 치맥페스티벌을 진행한 한국식품발전협회 이수동 회장은 "올해에는 참여하는 국내 치킨업체를 더욱 더 많이 확보하여 치맥

페스티벌의 규모를 확장시켜 진행할 계획"이라며, "치맥페스티벌은 국내 닭고기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축제이므로 닭고기 업계들도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계협회 1~2대 회장 故김재춘 씨 별세



(사)대한양계협회 1~2대 회장을 역임한 김재춘 전 중앙정보부장이 지난 1월 2일 향년 87세 나이로 별세하였다.

김재춘 회장은 1948년 육사5기로 임관하여 1963년 중앙정보부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1971~1979년 8, 9대 국회의원(자민당 최고위원)을 역임할 당시 (사)대한양계협회 1~2대(1973~1976년) 회장직을 역임하면서 양계산업은 물론 축산업 발전을 위해 큰 공을 세운 바 있다. 그 후 5·16 관련인사들의 모임인 5·16 민족상 이사장, 한중예술연합회 이사장, 축산단체연합회장직을 역임했고 보국훈장 통일장, 을지무공훈장 등을 받은 바 있다. 김재춘 회장은 대전 현충원 장군묘역에 안치되었다.

농촌진흥청, 연산오계 중복보존과 산업화의 추진 위해 나선다



문화재청과 천연기념물 지정 가축 보호 위해 함께 노력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문화재청 소속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함께 연산

오계 등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가축들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경우는 총 434건이며, 연산오계는 1962년에 천연기념물 제265호로 지정되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가축은 대부분 지자체와 개인이 관리하고 있으나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질병에서 완전히 안전할 수 없으므로 천연기념물의 특성을 유지하고 교배번식을 통한 후대생산 및 지속적인 사양관리가 이루

어져야 한다는 게 국립축산과학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국립축산과학원과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함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가축들의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립축산과학원 장원경 원장은 "문화재청과의 협업을 통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재래가축들의 보존가치와 과학적인 고유특성 및 역사성 등을 미리 파악하기 위한 '천연기념물 예비평가제도' 등을 만들고 천연기념물 지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양한 연령층을 겨냥한 닭고기 캠페인 송 방영해 화제

공중과 방송을 통해 국내산 닭고기의 맛과 영양학적 우수성 소개

(사)한국계육협회가 최근 국내산 닭고기의 소비촉진을 장려하기 위한 닭고기 캠페인 송을 공중과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하고 있어 화제다.

먼저 (사)한국계육협회는 10~20대 연령층을 겨냥해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0분 간 방송되는 SBS의 최신가요 프로그램인 '인기가요'에 닭고기 캠페인 송을 방영했다.

지난해 12월 1일에는 신인 걸그룹 베스티가 부르는 닭고기 캠페인 송이 공중파의 전파를 탔다. 베스티는 닭고기 캠페인 송을 부르며 발랄하고 깜찍한 표정과 몸짓으로 "야식엔 후라이드 딱이지. 몸보신엔 삼계탕이 최고야" 등 다양한 닭고기 제품을 소개했다. 베스티가 부르는 닭고기 캠페인 송에는 수입산 닭고기를 사용해 문제가 되었던 길거리 닭강정을 먹을 때는 국내산 닭고기에만 붙는 품질보증

마크를 확인하고 먹자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베스티에 이어 국민 첫사랑 수지가 활동 중인 아이돌그룹 미쓰에이(Miss A) 멤버들이 부르는 닭고기 캠페인 송도 각종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했다.

지난해 12월 8일 SBS 인기가요에서 수지와 수지가 활동하는 미쓰에이 멤버들은 함께 국내산 닭고기의 맛과 영양을 소개하는 캠페인 송을 불렀다. 미쓰에이는 수지 같은 꿀피부, 페이 같은 날씬 몸매, 민이처럼 건강한 몸매, 지아처럼 똑똑해 지려면 국내산 닭고기를 먹자는 내용을 담아 국내산 닭고기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소개했다. 총 1분 내외의 캠페인 송은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가사로 화제가 되어 각종 포털과 동영상 커뮤니티를 통해 재방영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사)한국계육협회는 수지와 미쓰에이가 부른 닭고기 캠페인 송이 화제가 되

자 지난해 12월 29일(일)부터 올해 1월 19일(일)까지 일요일 오전 8시 10분에 방송되는 SBS 도전천곡 프로그램 엔딩직전에도 총 4회에 걸쳐 닭고기 캠페인 송을 방영하기로 했다. SBS 도전천곡은 일요일 오전 시간대에 중·장년층이 주타겟이어서 SBS 인기가요의 청소년층의 소비자와 함께 다양한 연령층에게 국내산 닭고기의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사)한국계육협회는 올해는 다양한 국제 스포츠 경기가 개최되는 만큼, 계속적으로 다양한 연령층에게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들을 섭외해서 국내산 닭고기 캠페인 송을 개발하고 방송 프로그램에 방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계질병가이드 / 두부종창증후군의 증상 및 예방법

Q. 육계사육을 하다보면 두부종창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두부종창증후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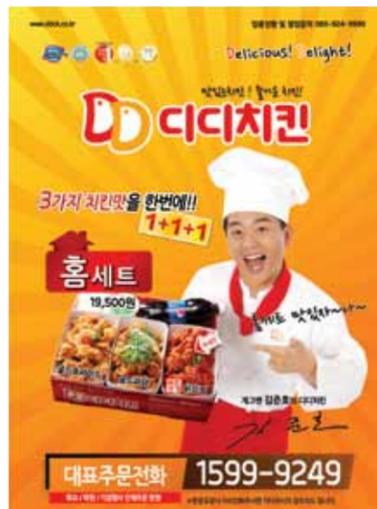
A. 두부종창증후군(SHS, Swollen Head Syndrom)은 체중이 무거운 육용종계나 육용계에서 대부분 발병하는 질병입니다. 사실 두부종창증후군은 질병명이라기 보다는 단지 증상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대개 Avian Pneumovirus(APV)가 원인체로 알고 있지만, 사실 여러 종류의 전염성 질병에 노출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대장균 등이 감염되어 눈 주위의 피하에 침입함으로써 다양한 염증반응이 유발되어 머리가 종대되는 증상을 나타내는데, 이를 두부종창증후군이라 합니다.

계절적으로는 온도가 높은 하절기와 환절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개골과 눈 주위가 붓는 경우는 평사에서 사육하는 육용계나 육용종계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두부종창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이러한 두부종창증후군은 먼저 면역억제성 질병인 전염성 F낭병(감보로병), 닭 전염성 빈혈증(CIA), 마렙병(MD) 등의 바이러스에 노출된 다음 호흡기 친화성 바이러스인 전염성 기관지염 바이러스

(IBV), 뉴캐슬병 바이러스(NDV), 닭 뉴모바이러스(APV) 등에 감염되고 이후 외부 환경에 오염되어 있는 세균들이 마지막으로 침투함으로써 두부종창증후군이 발생합니다. 이때 감염되는 세균으로는 호흡기 점막을 뚫고 침입하는 대장균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그 외에 포도상구균과 ORT가 감염되기도 합니다. 특히 대장균 감염의 대부분은 급수원과 급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음수소독이 필요하며, 소독제로는 염소제가 권장됩니다. 두부종창은 많은 질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므로 정확한 진단을 받아 적절한 예방 및 치료를 하는 것이 좋으며, 약제 감수성 검사를 통하여 감수성 있는 항생제를 선택하여 조치하면 그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호흡기 질병 특성상 환절기나 동절기 계사 내 환기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며 질병이 농장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과 계사 등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dhsung@bansuk.biz로 문의해 주세요.

(제공 : 반석 가금진료 연구소)

디디치킨, 개그맨 김준호 씨를 광고모델로 활용 중!



한강씨엠(주)이 개그맨 김준호 씨를 디디치킨 광고모델로 발탁했다. 한강씨엠(주)이 운영하는 치킨 프랜차이즈 디디치킨은 지난해 11월 4일 개그맨 김준호 씨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김준호 씨를 광고모델로 하여 각종 매체에서 디디치킨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한강씨엠(주)는 KBS 개그콘서트의 인기코너인 좀비프로젝트, 뽀인트엔먼트, 1박2일에 출연 중인 개그맨 김준호 씨의 인기와 인지

도를 감안해 광고모델로 발탁했으며, 앞으로 신문, 온라인, 프로모션, 라디오 광고에 김준호 씨의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그맨 김준호 씨는 지난해 '2013년 K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디디치킨 관계자는 "김준호 씨가 좀비프로젝트, 뽀인트엔먼트 등 개그콘서트에서 인기코너들에서 활약하며 국민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으며 '자나자나' 등 다양한 유행어를 히트시킨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히고, "김준호 씨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디디치킨의 꾸준하고 차별화된 이미지를 잘 표현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해 광고모델로 발탁했다"고 덧붙였다.

한강씨엠(주)이 운영하는 디디치킨은 다양하고 차별화된 치킨 제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대표적인 메뉴로는 '1+1+1 홈세트', '1+1+1 디디치킨' 등으로 3가지 치킨 맛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제품이 있다.

단체소식 양계관련단체 업무추진 활동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개인 닭고기자조금 납입 현황(2013년 12월)

(단위: 원)

대표자	농장명	납부금액	주소
한민전	호박골농장	105,500 (472,300)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종길	성우농장	140,250 (903,270)	경북 영천시 북안면
전병현		75,800 (75,800)	
지귀영	부처물농장	150,000 (480,000)	경기 화성시 마도면
조태운	동일농장	1,095,600 (1,095,600)	충남 논산시 부적면
이순준논산	노티농장	80,000 (680,000)	충남 논산시 노성면
김영세	영광농장	145,800 (1,009,8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김대영	대영농장	144,710 (526,760)	전북 순창군 쌍치면
김중범		80,000 (421,700)	
송분심		50,000 (167,760)	
정성수		1,911,360 (1,911,360)	경북 안동시 서후면

※ 2013년 12월 자조금 납부금액 총계는 3,979,020원이며, ()는 자조금 납부금액의 누계입니다.
※ 명단에 주소가 없는 분들은 닭고기자조금 사무국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02-585-9974)

(사)대한양계협회



2013년도 제3차 이사회 개최



제3차 이사회에서는 하림규탄 여의도 대회에 대한 결과보고 및 닭 여제능력검정소 신축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 등이 있었다

본회에서는 지난해 12월 27일 2013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사회에는 16명의 이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그 동안의 협회 추진사항을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12월 18일 여의도에서 개최하였던 하림규탄 대회 결과보고가 이루어졌으며,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을 막기 위해 전 양계

업계가 참여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차량용 스티커를 제작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닭 경제능력검정소 신축 진행사항 보고와 2014년도 각 분과위원회 추진계획 보고가 이루어져 원안대로 접수되었다. 2014년 전반적으로 축산업 경기가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급조절을 위한 GPS 쿼터제 도입과 자조금거출향상을 위한 사업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둔 축산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의 보안사항과 위반에 따른 구체적인 제재사항 등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육용종계병아리 가격 인상 자제 요청

최근 생산비 상승에 따라 일부 원종계 업체에서 올해부터 육용종계병아리 판매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본회 종계부화분과위원회(위원장

이언중)에서 발 빠른 조치에 나섰다. 본회에서는 지난해 12월 23일 공문을 통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육계산업을 고려하여 원종계 업체의 육용종계병아리 단가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육용종계병아리 가격인상 소식은 동종업계의 도미노 가격인상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현재 육용종계병아리 단가는 수당 3,800~4,000원선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육용종계병아리단가의 상승은 실용계 병아리 원가상승으로 이어져 결국은 전체 육계농가의 생산비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였다.

2014년 시무식



시무식에서 이준동 회장의 매년 발전하는 양계협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양계협회 만들어가기로

본회에서는 지난 1월 3일 2014년 시무식을 갖고 갑오년 새로운 한해 더욱 발전되는 (사)대한양계협회가 될 것을 다짐하였다. 시무식에서 이준동 회장은

매년 발전하는 양계협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직원들도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했다. 또한 이훈재 육계분과위원장은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양계산업을 함께 발전시켜나간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올해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모든 임직원들 또한 서로 덕담을 나누며 새로 시작하는 한해를 기념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한국계육협회



호감도 1위 국민 첫사랑, 수지의 닭고기 사랑



이제는 청소년층에서 중·장년층으로 타겟층 바꿔 재방영

(사)한국계육협회(회장 정병학)는 국산 닭고기 소비 촉진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9일(일)부터 오는 1월 19일(일)까지 일요일 오전 8시 10분에 방송되는 SBS '도전전곡' 프로그램 엔딩직전에 닭고기 캠페인 송을 매주 일요일, 총

4회 송출한다. 협회는 매주 일요일 오후에 방송되는 청소년층 타겟 프로그램 SBS '인기가요' 캠페인 송 코너에 기방영되었던 미쓰에이(Miss A)의 닭고기 캠페인 송 콘텐츠를 2차 활용하는 것으로 기존 캠페인 광고 단가를 비교하였을 때 홍보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중·장년층이 주타겟인 '도전전곡' 프로그램 내에서 다시 노출되어 시청률과 집중도를 보완한 효과적인 홍보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총 1분 내외의 캠페인 송은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함께 맛있는 국내산 닭고기를 먹고 싶게 만드는 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방송 외에도 인터넷 뉴스 및 유튜브 등 각종 포털, 동영상 커뮤니티에서 크게 이슈가 된 바 있다.

(사)한국계육협회 관계자는 “광고 호감도 1위를 달리는 수지와 수지가 활동하

는 미쓰에이 걸그룹을 활용한 국산 닭고기 예찬 송을 중·장년층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더욱 폭넓은 소비자층에게 닭고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품질 좋고 맛도 훌륭한 국내산 닭고기를 즐겨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걸쳐 매월 말일 전국 일제 소독을 실시하기로 결정 실시하였으며 추후 상황 여건에 따라 오는 5월 이후 소독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번 전통시장 일제 소독 기간 동안(지난해 12월 30일, 31일) 각 시, 군구로 공문을 보내어 협조, 독려키로 하는 등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

앞으로도 각 시, 군구는 AI 차단방역에 철저히 임하며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키로 하는 등 체계적으로 차단방역에 임하기로 하였다.

본 협회는 앞으로도 전통시장 종사자의 방역교육, 전국 일제 소독(수요일) 실시 등 AI 발생 0%를 위해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사)한국토종닭협회



‘토종닭으로 사랑 나눠요’



사랑의 토종닭 나누기 행사 (종로)

연말연시를 맞아 ‘사랑의 토종닭 나누기’ 행사 개최

본 협회는 ‘사랑의 토종닭 나누기’ 행사를 그동안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올 연말연시에도 모든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사랑의 토종닭나누기를 실시하였다.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시 종로 소재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많은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랑의 토종닭 나누기’

행사를 개최하고 우수한 우리 토종닭요리를 선보이며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이신 모든 분들은 우리 토종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토종닭을 기증해 주는데 대해 감사

하며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토종닭협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토종닭 나누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닭고기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사랑의 토종닭 나누기’행사는 어려운 이웃에게 3저1고 식품인 토종닭고기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함께하는 사업이다.

한·중 FTA 9차 협상규탄 기자회견



농산물에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정부에 호소

지난 1월 6일(월)에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는 본회와 농민단체들이 모여 한·중 FTA 9차 협상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8차 협상에서도 도출된 기초양허초안을 바탕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초민감품목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농민들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현재 한·중 FTA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

하고 막대한 중국산 농축산물이 유입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최근 실질적 타격을 이룬 한·호주 FTA로 인한 축산업의 위기상황이 심화되었다”고 밝히며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기조로

한 정부의 TPP 가입검토 등으로 인해 한국농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우리 농축산업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 농업의 근간은 뿌리째 흔들릴 것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본회 김연수 회장은 “한·중 FTA가 체결되면 지리적으로 가깝고 값이 싼 중국산 닭고기가 국내 시장을 초토화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농산물, 특히 건강식품인 닭고기가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최소한의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한국토종닭협회 주관 AI 대비, 전통시장 일제 소독 나서



전통시장 소독(육거리시장)

산닭유통분과위 의결,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방역 펼쳐

AI 등 정부의 방역정책에 의거 (사)한국토종닭협회 주관 하에 산닭유통분과위 전 지회를 중심으로 지난해 12월 30일(월)부터 31일(화)까지 일제히 전채소

독을 실시하였다.

최근 전통시장에서 LPAI(저병원성 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철새 도래 등 AI 위험시기를 맞아 전국 전통시장 및 5일장의 토종닭을 비롯하여, 가금류 전체의 판매를 일제를 중단하고 모든 가금 판매 업소는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였다.

이는 지난해 12월 18일 본 협회 산닭유통분과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지난해 12월을 시작으로 오는 4월까지 총 5회에

설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농관원, 4천여 명 투입해 관련기관과 합동단속 예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임재암,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전국에 동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은 1월 6일부터 29일까지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명이 투입되며, 이 기간 중에 검찰 등 관련기

관과 합동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품목으로는 제수용품인 닭고기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와 과일류, 나물류 등이며, 이번 원산지 단속에서 제수용·선물용 농식품의 유통량이 많은 백화점과 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산 농축산물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성과를 거두기 바라며, 소비자 및 농민들도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

Today's
맛 있는
닭고기 요리

매생이 삼계탕

겨울철이 제철인 매생이는 철분과 칼슘이 풍부해 빈혈과 골다공증 등에 좋다. 또한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다. 매생이와 굴이 들어간 삼계탕은 닭고기의 연한 맛과 잘 어울린다.

재 료 닭 1마리(500~600g), 매생이 50g, 수삼(3년근) 1뿌리, 찹쌀 1/4컵, 마늘 4쪽, 밤 1개, 대추 1개, 은행 4개, 굴 30g, 참기름 1큰 술, 다진 파 1큰 술, 소금, 후추 약간

Cooking

1. 닭을 깨끗이 손질하여 씻은 후 안쪽에 붙어있는 기름을 제거하고 모양이 좋도록 날개 끝과 목, 발 부분을 제거한다.
2. 찹쌀은 미리 씻어 불려두고 매생이는 맑은 물에 씻어 물기를 뺀 후 3cm 길이로 잘라 놓고 굴은 하나하나 껍질을 제거하며 씻어 건져 놓는다.
3. 대추는 돌려 깎아 씨를 빼내고 은행은 마른 팬에 볶아 껍질을 제거한다. 나머지 재료들도 깨끗이 씻어 놓는다.
4. 닭 안쪽에 먼저 마늘을 넣어 쌀이 새는 것을 막고 속 재료를 모두 집어넣은 뒤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다리 안쪽으로 칼집을 넣어 닭다리를 엇갈리게 끼운다.
5. 찬 물에 닭을 넣고 푹 끓이다가 80% 정도 익었을 때 매생이와 굴을 참기름을 두른 팬에 살짝 볶아 넣고 한 번 더 끓여 완성한다. 다진 파와 소금, 후추는 곁들여 낸다.



(제공 :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

퀴즈 날말맞추기

1			12		
		11			
2	3		10	8	
	4				
5			7		9
	6				

◇ 가로풀이 ✨ ✨

1. 잘못이 있는 사람을 직업이나 맡은 일에서 쫓아내어 신분을 박탈함
2. 어떤 시물 또는 게임의 속내용을 새겨서 느끼거나 생각함
4. 갯가의 개흙이 깔린 벌판, 간조와 만조의 차가 큰 해안 지형에 발달함
5. 육지에 면한 바다나 호수의 일부를 독으로 막고 그 안의 물을 빼내어 육지로 만드는 일
6. 지휘관과 그 참모가 모여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곳
7. 개량목적이 아닌 일반적으로 유통되어 소비자들이 접하는 계란이나 닭고기를 생산하는 닭
10. 의식적으로 허파 속에 공기가 많이 드나들도록 숨쉬는 방법
11. 외국에 나가 있던 사람이 자기 나라로 돌아오거나 돌아감
12. 즐겨 부르는 노래

◇ 세로풀이

1. 자음 가운데 발음 기관의 어느 한 부분을 막았다가 일시에 터뜨려 내는 음
3. 아직 개척하지 못했거나 아니한 땅
7. 어차구니가 없어 저도 모르게 웃음이 툭 터져 나온
8. 몸을 보호하는 데 쓰는 것
9. 수를 헤아림
12.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63호 정답

궤	ㅈ	ㅊ	ㅌ	
ㄱ	ㅇ	ㄹ	ㄴ	ㄷ
	ㄱ	ㅁ	ㄱ	
ㄹ	ㅈ	ㄹ	ㅍ	ㅁ
		ㄴ	ㅂ	ㅁ
ㄴ	ㅇ	ㅁ	ㅁ	ㅂ



양 계
비법전수

수분배출을 위한 환기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최소 환기기에 충분한 양으로 환기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좋은 생산성적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최소 환기기에 적절한 환기를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건조한 깔짚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계사에서 발생하는 수분을 환기라는 기술을 통하여 적절히 배출시킴으로써 좋은 공기환경을 만들 수 있고 결국 높은 생산성을 이룰 수 있다.

다음은 외부기온에 따라서 일령별

로 수분배출을 위한 최소 환기량이 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1일령에 외부기온이 -20℃일 때와 20℃일 때 환기량의 차이는 2배에 이른다. 35일령에는 외부기온이 -20℃일 때와 20℃일 때 16배의 환기량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외부기온에 따른 적절한 수분배출을 함으로써 깔짚을 보송보송하게 유지할 수 있다.

〈출처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닭기르기 100문100답'〉

외부 기온에 따른 수분배출을 위한 최소환기량 (CFM/10,000수)

일령	외부기온별 환기량				
	-20℃	-10℃	0℃	10℃	20℃
1	480	500	560	625	960
7	840	900	990	1100	1760
14	1470	1550	1720	1970	3300
21	2130	2250	2500	2870	5000
28	3050	3250	3700	4350	9000
35	3900	4100	5100	9600	62000

AI 차단방역 철저

AI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차단방역과 주기적 소독 필수

농장주, 관리인 등 농장근무자

- ⇒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출입자를 철저하게 통제
- ⇒ 계사출입시 발판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생활화
- ⇒ 철새도래지 및 서식지, 가축시장, 부화장, 집하장, 도계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장 등의 방문 자제
- ⇒ AI발생국 여행 자제(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
-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철저한 소독 및 교육 실시
- ⇒ 살충 및 구서(쥐잡기) 실시

방문자 등 외부인

- ⇒ 농장출입구에 '방역상 출입금지' 안내문 부착
- ⇒ 발판소독조, 분무소독시설 설치, 운영
- ⇒ 외국인의 가금류농가 출입제한
- ⇒ 동물약품·사료·채혈요원 등 방문자의 사전 약속 및 청결한 의복·신발 착용
- ⇒ 계사 출입 시 깨끗한 방역복·장화를 착용하고 출입문에서 장화 침지 소독

출입차량 ⇒ 모든 차량은 농장 출입구에서 세척 및 소독 실시

AI의심축 신고전화(1588-4060)